연중 제19주일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루가 12,40).

기도서 412면 (C해)
제1독서 : 지 혜 18,6—9
제2독서 : 히 브 11,1—2.8—19
복 음 : 루 가 12,32—48

□ 강 론

믿음은 하느님의 일

왕 수 해 신부

오늘 제2독서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고 희생될 이사악을 되찾게 되었으며, 사라도 믿음으로 늙은 나이에 외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분은 믿음안에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내며 하늘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사도 바오로는 이 두분을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위대성과 그 보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믿음은 공기와 닮은 점이 많다. 공기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고 항상 호흡할 수 있어서 평소에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가 적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누구도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필요한 것이며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신이 만연된 세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까지 믿음이 없어진 세상을 가정해 보라! 그런 세상은 오직 악귀들만 우글거리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바로 믿음이 상실된 곳은 지옥이며 황량한 사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행복과 사랑과 희망이 푸르게 움트는 복지의 나라일 것이다. 믿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끈이며 삶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과 인연을 맺고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를 믿는 것 뿐이다. 믿음은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물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요한 6장 28~29).

믿음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업중 가장 큰 과업이며 하느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에 작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하느님의 일이기에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도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 가장 크게 마련이다. 그것은 생명의 수여(授與)다.

오늘 복음은 이러한 복된 믿음의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과 맺은 인연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속하기로 다짐하며, 미사중에 또 일주일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느님과 인연을 맺었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또다시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광주 가톨릭대학)

소리 지금 아프자.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들어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비밀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고백하기란 죽기만큼이나 싫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더 깊이 묻어두려고 억지를 쓰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자멸의 구렁에 빠지기도 한다. 불행한 일이다.

부천경찰서 성(性)고문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압수되고 있다. 왜 압수해야 하는가? 고발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 고발장을 쓴 변호사들을 의법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째서 검찰총장은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하는가? 설사 장영자 사건때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큰 정치를 하겠다는 상황 아래에서 그래도 되는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아직도 국회를 경시(輕視)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이러지들 말자!

왜 국민들은 정부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가? 5·16 군사 쿠데타 이래 수많은 의혹사건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특히 유신이래 많은 사건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도매체를 통한 사전 공개재판(?) 형식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되풀이해서는 안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어려워지기만 하는 국제 사정은 계속 우리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러운 일까지도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소상히 알려서 불신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피고름을 짜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큰 정치가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아픔이 필요하다. 마치 하느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그러하듯이.

숲정이 산책

나도 챙피해서 못보겠다—견공

□성서로 식힌 여름①

영의 바캉스

김 보 나 수녀

나에게는 오빠가 세 분, 여동생이 셋이 있다. 조카들이 모두 17명이니 대부대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한 여동생의 딸인 크리스티나는 미사때 성가 반주자였다. 중학생 때에 하던 말이 생각난다. "엄마, 미사 참례하는 것이 지루하고 덥고 짜증이 나요" "얘 미사를 재미로 하니, 하느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그의 엄마 대답이다,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나 자신도 미사참례 때에 더위를 잊을 만큼 열열한 찬미를 드리고 있는지를…

시원한 바캉스만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삼 사일 즐기기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가. 맛있게 먹을 식품. 가지가지의 옷들. 텐트랑 모든 장비를 갖추고 시간표도 짜본다. 우리도 육체만 키우는 느빌림인가? (거인족—창세기 6 : 4)

크리스찬은 영혼도 즐길 〈영의 바캉스〉를 생각해 보자.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샘물로 목을 추기고 은총의 냇물에 온 몸을 담궈보자. 에제키엘서 47장을 펴서 읽어보자.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었다.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좀더 가서 건느니 물이 무릎에 찼고 더 깊은 곳은 허리에 찼다"

나의 신앙은 어느 곳까지 건너 보았을까? 10년 20년,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하는 신자는 발바닥 바캉스이니 시원함을 못느낀다. 좀더 깊이있는 신자는 성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무릎 바캉스다. 조금 맛을 알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신자이다. 성가대, L·M, 사목회 활동 등등으로 나 자신만의 신앙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신자는 허리에까지 은총의 물을 채운 시원한 바캉스를 하는 분들이다.

우리 교구에서는 성서 40주간을 통해서 신·구약성서를 완독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현재 성서 40주간 4기생들이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했다. "이곳에 나와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피서하는 거예요" 어느 수강생의 말이다. 이제는 성서에서 시원한 생수를 찾았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먹어 한살짜리 신앙이 두살, 세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큰 힘을 체험했기 때문이리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서를 읽어가면 시원한 물이 나오고, 고소한 젖과, 달콤한 꿀맛도 나온다. 완전히 은총의 술에 취해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

하느님께서 이 시간에도 펑펑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은총의 강물로 온 몸을 푹 담궈서 욕심, 미움,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영의 바캉스〉를 해보자.

(인보성체수도회)

□성서교실 ⑭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루가 12 : 35).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루가 12 : 35~38)는 내용은 루가복음에만 있는 기사(記事)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는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주의하고 있어라는 경고와 비유는 마르코 13장, 마태오 24~25장에 나오나 루가 특유의 21장 34~36절에 뿐만 아니라 12장 35~48절에도 나오고 있다.

「혼인잔치」를 「연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마디는 원래 「결혼피로」이나(마태 22 : 1~14), 여기서는 특히 「결혼」이 강조되지 않고 일반의 「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해석의 추세인 것이다(루가 14 : 8도 같음).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천국의 즐거운 「연회」를 미루고 오지 않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두드리는 경우(계시 3 : 20)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편에서 두드리는 경우(루가11 : 9, 10)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소위 「어린 양의 혼인」이 이것을 말한다(묵시 19 : 7. 9).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의에 대해서는 마태오, 마르코가 자세히 말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문제는 「세계의 희망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계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神學)이며, 미치광이 신도의 제목(題目)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있으나, 인류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리에 띠를 띤다」는 것은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는 것」(이사 11 : 5)이며 「힘찬 모습」(잠언 31 : 17)이고 「잔치옷으로 갈아 입는 것」(시 30 : 11)이며 「진리의 띠를 띠는 것」(에 6 : 14)이고 「사랑의 띠를 띠는 것」(골로 3 : 14)이다.

희소식!

독사뱀 물린사람 전문 치료함. 五代째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⑨㉛㊽번차

전화 ⑤ 3544

송 준 의(발라바)

현대병 치료의 신약

영 지

이리시 월성동

(해바라기농장 앞)

성심 영지 농장

☎ 3—9513

김프란치스코·배아네스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효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13일 오전 11시, 장소—교구청 사목국
2. 전주지구 소년꾸리아 회의 : 10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천주교회 사제관 2층
3. 전주교구 교리교사 도보 성지순례 : 일시—13일 오전 10시, 여산→천호→고산
   ※ 참가비는 없고 중식 교통비 지참, 교사들의 많은 참석바람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①교육내용—생식생리와 점액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미혼자, 부부동반 환영
   ③일시—12일 오전 10시
   ④장소—가톨릭센타 2층, 행복한 가정운동 교구위원회
5. 8월중 레지아 회의 : 일시—17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참석대상—레지아 산하 각급 평의회 꼬미시움·꾸리아 및 직속쁘레시디움 간부전원

◎ 축 영명! 성 라우렌시오(10일) : 박진량·범선배·전대복 신부님 축하합니다

교사학교 개설 : 초·중·고교 교리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①과목 : 성서, 교리교수법, 전례, 프로그래밍, 레크리에이션, 리더쉽, 청소년 이해, 상담지도론, 청소년활동
②일시 : 1기—1986. 9. 1~13, 1986. 11. 3~15(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2기—1987. 1. 12~18(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 1·2기중 선택
③수강료 : 2만원
④접수 : 1기—8월 18일까지, 2기—12월 12일까지, 교육국으로(5—0041)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66 : 1~9 복음 : 루가 6 : 20~26

♣ 잠 깐 !

피서와 피정

피서(避暑) : 선선한 곳으로 옮기어 더위를 피하는 일
피정(避靜) : 시끄러운 곳을 피하여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곳에서 깊이 생각함

국어 사전에서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며 이 여름을 생각한다.

무덥다, 그래서 단순히 남들이 하듯, 더위를 피한다고 시끄러울 것인가?

조용한 산골짜기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오히려 시끄럽던 내 삶을 조용히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도 갖는 것이 신앙인의 슬기가 아닐까?—성스러운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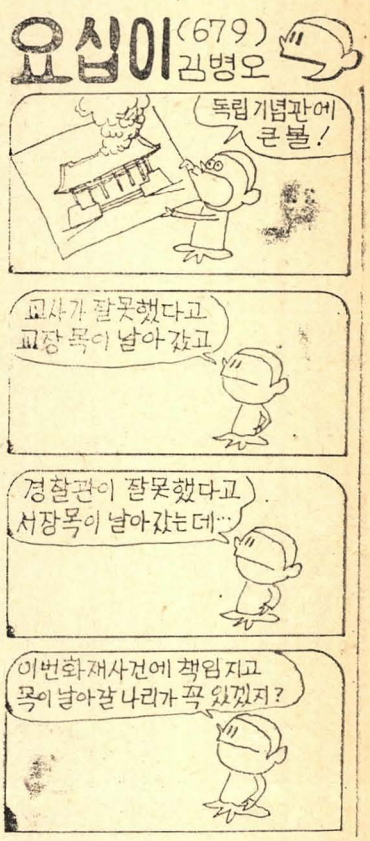
좀더 경건하게 !

"복사, 성서봉독자, 해설자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참된 전례적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렇듯 위대한 직무에 적합하게, 또한 하느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의당히 기대하는 깊은 경건심과 올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전례헌 29)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따라 요즘 우리들의 전례참여 태도가 좀 해이해진 느낌이다. 전례를 직접 돕는 봉사자는 물론, 그 전례에 함께하는 일반 신자들의 태도,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복장이 차츰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

적어도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일반사회 상식적인 태도와 복장이, 하물며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야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대한 노출형, 슬리퍼형, 그리고 미사중에 부채질하는 신자는 또 무슨 형이라고 부를까? 자기 편안만을 생각해서 바로 옆사람의 경건심에 분심들게 말자.
하느님 앞에 서있는 자의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알리는 글』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땅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금을 필요로 합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번호
조흥은행 702—1—091302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전북의료 지정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박승창 산부인과의원**
(팔달로변 중앙성당 옆)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전주 ☎ 4—9026
박 승 창 (노렌조)
이 정 희 (마리아)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의원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축! 몽소승천 대축일 : 15일, 미사—오전 5시30분·10시·오후 3시·8시, 아파트성당—오전 8시·10시 5개공소 합동미사—오후 4시, 황운리공소
2.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 성인들의 순교지를 순례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3. 축! 영세식 : 14일 오후 5시, 대부모를 모시고 14일 오후 4시까지 성당에 나오세요
4.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교직자 야유회 : 16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출발
   장소—송광사, 초·중·고·대학 교수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시다 : 아직 신축기금을 못내신 가정은 속히 납부하여 성전건립 추진에 협조합시다
7. 공소 순회미사 : 16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8. 금주전례 : 해설—전병구, 독서·봉헌—박춘근 부부
   신자기도—배기창 부부, 촛불봉헌—김진희 부부
   차주전례 : 해설—최명자, 독서·봉헌—노영석 부부
   신자기도—문명식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51,810원 교무금 : 394,000원
신축금 : 8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수녀원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1. 성모승천대축일(사대축일) : 15일
   신자들 미사의무가 있음, 미사시간 주일과 같음
2.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3. 성우회 : 오늘 공시미사 후
4. L·M 피정 : 11일 9시30분~오후 5시
5. 성당대청소 : 12일, 전단원 수고해 주세요
6. 어린이 영세식 : 14일 오후 5시
7. 첫영성체자 고백성사 : 14일 오후 4시
8. 첫영성체 : 15일 공식미사
9. 자모회 : 14일 10시30분
10. 선풍기 1대 기증 : 제대회에서(고백실)
    금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강주호 ②이상인
    봉헌—안병수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최희숙, 독서—①이기배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74,440원 교무금 : 530,1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축! 성모승천대축일 : 15일
   대축일미사는 10시미사만 있읍니다
2. 첫영성체 : 성모승천대축일(15일) 미사중에
   첫고백—14일 부모님 모임은 오늘(10일) 공식미사후
3. 성모승천대축일맞이 대청소 : 오늘(10일) 공식미사후
4. 본당의날 행사 : 본당설립 10주년기념 본당의날 행사에 전신자는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5. 여름성경학교 무사히 마쳤읍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산청 성심인애원 방문 : 11일 오전 7시30분 성당출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속히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7. 청년회 수련회 장소변경 : 남원 육모정
   12일~13일(1박2일), 회비—4천원
8. 본당 울뜨레아 : 20일 저녁미사 후
9. 제대회원 모집 :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부님께 신청하세요
10. 전례위원 교육 및 모임 :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11.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 :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3,600원 교무금 : 9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성심회 : 13일 오후 2시
2. 프란치스꼬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
3. 반장님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영세자 전체 특별교리 : 12일·13일·14일 저녁7시30분
5. 영세식 : 15일 10시30분 공식미사
   대부모는 9시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6.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새벽미사·공식미사·저녁미사 있음, 평화동 9시미사 있음
7. 감실 구입헌금 : 박병환—1만원, 김광한—2만원
8. 사제양성후원금 : 익명—2만원, 형제회—4만원
9. 금주봉헌 : 본당—김기업 부부, 2성당—김덕동 부부
   차주봉헌 : 본당—진성복 부부, 2성당—이춘원 부부
10. 차주전례
    본당 : 해설—김은경,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2성당—해설—함문권, 독서—①김광탁 ②박병환

□ 지난주 봉헌금 : 본당—276,290원, 2성당—136,500원
계—412,79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소년꾸리아 : 오늘 오후 1시30분
3. 성화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레지아 : 다음주 오후 2시
5. 성모승천대축일(15일) : 대축일 미사이므로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미사시간은 주일과 같읍니다
6. 감사 : 제의방 냉장고 기증—익명

□ 지난주 봉헌금 : 1,015,330원 교무금 : 542,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성모승천대축일 미사(15일) : 새벽 5시30분·오전 9시·10시30분·저녁 8시
2. 중·고 영세식 : 15일 저녁미사 중
3. 오늘의 모임 : 글라라회
   차주 : 성모회·울뜨레아
4. 축! 결혼 : 17일 12시, 효자동성당
   신랑—선종운(리노), 신부—박경이(발바라)

□ 지난주 봉헌금 : 657,030원 교무금 : 675,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3—7440

1986년 8월 1일 발행〈격월간〉 노 송 신 협 회 보 제27호【1】

신협 3대운동
1. 경제운동
2. 교육운동
3. 윤리운동

노송신협회보

자조 · 자립 · 협동

재무부인가 7 - 23호
1986년 8월 1일 발행
2 - 4834
사 무 실 6 - 0954
2 - 8194
인쇄 / 에 벤 정 판 사
2 - 2 9 7 2

"연체독려의 어려움"

지루한 장마가 올것이다. 예상했는데 올 여름의 장마는 예년과 다르게 집중 폭우나 재해를 몰고오지않고 조용히 물러났는가보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듯이 맹위를 떨치는 오늘도 연체독려을 나가기위하여 연체자 명단을 뒤적여본다. 오늘 방문할 집은 날자 약속한 집이기에 다른 조합원 집은 가지못해도 이집은 꼭 가야한다오라고 할때 가지않으면 다음 기회에 찾아갈때 약속날짜에 오지않아 다 써버렸다고 할테니까, 물론 오늘 간다고 연체 대출금을 갚진않겠지만 약속한 날짜이니까 가봐야한다는 생각으로 오후의 뜨거운 태양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폭염속을 다니다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찾아갈 조합원에게 내가 할 말을 미리정리하여 본다. ○○○조합원 집에가서 오늘은 뚝부러지게 이야기해야지 ○○날까지 갚지않으면 법적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조합원 집에 도착하여보니 웬걸 집안이 썰렁하고 온통 난리를 치른집이다. 예감이 이상하여 옆집에 물어보니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묻는다. 노송신용협동조합에서 왔읍니다. 「아! 그래요 조합에서 돈 갔다썼군요, 그집 어제밤에 도망갔어요」 하는 소리에 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야밤 도주한 조합원이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며 배신감마져 든다. 도망친 조합원 소재파악을 어떻게해야하나,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 앞선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이 변제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일차적인 변제는 채무자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무자의 행불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있을때가 아니지 다른 조합원 집을 방문해야지 왠일인지 오늘 하루가 좋을것 같지않은 느낌이 든다.

○○○계십니까하고 집에들어서니 꼬마들3 명이 부엌에서 나오다 화들짝 놀라는 것을보니 말썽을 피우다 들킨것같다.

"애 너의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몰라요 일 나가셨니, 예, 어느곳에서 일하니, 몰라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언제들어오시니, 밤에들어와요" 꼬마들은 계속 부엌으로 들랑달랑.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니 저희들끼리 수근거리며 킥킥대고 웃는다. "야 이거 설탕이 아니야, 맛이 이상해" 가만히 지켜보니 미원을 물에타서 마시는것이다. 마루에 걸터앉아 다음 갈곳을 생각, 여기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갈까, 아니면 다른곳에 갈까, 날씨는 무덥고 짜증이 난다. 그래 오늘은 시작부터가 근사하지 못했으니 기분좋은 일이라도 한가지해야겠다. "애들아 날 따라와 아저씨가 빵 사줄께" 쪼르르 따라오는 꼬마 셋을 동네 구멍가게에서 멍텅구리 빵을 하나씩 안겨주니 좋아서 어쩔줄 모른다. 점심 먹었니 하고 물어보았으나 묵묵부담 괜히 물어보았군하는 생각이 앞서고 내 콧등이 시큰거린다. 제일 큰 꼬마에게 아빠들어오시면 이 쪽지 전해주라고 몇자 적어 꼬마에게 주었다. 불볕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어서 가을이 왔으면 좋으련만.

연체독려를 다니다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연체조합원 대부분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서 갚겠다느니, 또는 돈받을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룬다커니, 며칠날 오라고하여 가면 또 며칠후로 미루고, 이렇게 독려일이 지나면 직원이 왔다 갔으니 며칠간은 안오겠지하는 안도의 생각을 갖는 조합원등, 변명아닌 변명들을 나열한다. 물론 못갚는 사람의 심정도 좋을리 없겠지만 연체조합원중에는 연체를해도 꼬박 꼬박 연체료를 물고 있으니 조합에서 이자를 깎아 주는것도 아니고 지금 돈벌이도 시원찮다며 떼어먹지 않을테니까 걱정말라는투의 짜증섞인 말에 연체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의 회전이 문제라해도 막무가내이다. 어쩌다 연체조합원이 완전변제라도 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내주머니에 들어오는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임무이기에 한건 해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연체조합원중에는 미안해 안절부절하는 조합원들도있고, 이 모든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인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없는이에게는 돈이 인간의 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서 돈을 벌어 이 더운 여름날 짜증나지않고 시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또다시 발길을 옮긴다.

경기침체 언제 끝나려나

작년 이때쯤부터 여기 저기서 경기불황이니 마이너스 성장이니 하는 경제용어들이 신문지상이나 T. V에 자주 오르내렸고, 86년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경기침체에 대하여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는 원유값이 계속 하락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적자이며 엔화 상승으로 대일 무역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등 경제에 대한 불안정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얼마전 올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흑자로 돌아셨다는 T. V 뉴우스에도 우리들은 그런가 하고 무덤덤해지는 것은 수출흑자로 인한 경기활성화가 우리 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까?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불황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여 나갈까 이리저리 생각하여보지만 쪼들리는 생활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찌는듯한 더위에 많은 이들이 산이나 바다등으로 훌쩍 떠나고 싶지만 막상 피서라도 다녀오면 당장 쪼들릴 살림살이 때문에 가까운 시냇가에 온가족이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이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문구는 개헌특위 구성, 공청회 또는 9월말 안으로 개헌안 국회통과니, 내년 1,2월에 개헌안 국민투표등 정치일정에 대한 여·야간의 강도높은 말들로 열기를 더해가지만, 정치열기보다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넉넉하여질 수 있게 경기가 풀리어 돈의 유통과정이 원활해 졌으면 하는 바램이 앞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평범한 보통사람들이고 소시민이기 때문일까? 작든 크든 장사하는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은 거래가 예년과 같지 않다고 한다. 남의 돈이라도 만져보려면 경기가 원활하게 풀려나가야 할터인데 요즘같은 경기엔 만져만보고 되돌려 준다해도 만져볼 돈이 없다고 하는 상인들의 말이 절실히 피부에 와 닿는다.

각설하고, 우리 조합 입장에서 돈의 유통과정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86년도 목표액이 2,250,000,000원인데 7월말 현재 1,990,100,913원으로 이 상태로 나아가면 12월말까지 목표액 도달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각 계정별로 분류하여 볼 때도 큰 성장이 없다.

특히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건수와 금액이 매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대출변제 건수와 금액에 비하여 신규대출건수 및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이점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대출받고저 할때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의식은 동기를 유발하며— 사업자금, 상업자금, 주택구입, 학자금등 — 동기가 부여되면 투자를 하여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이때에는 대출금액과 상환방법, 기간등을 생각하여 대출받을 금액을 결정하겠지만 요즘같이 불투명한 경기속에서는 선뜻 대출받기가 두

려워질 것으로 상환능력에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 대출후에 변제능력이 부족할때에 자칫하면 대출금이 빚으로 남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앞서기에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개 조합원이나 조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이 아닐까? 대출받을 조합원들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연체조합원의 증가현상, 이로 인하여 연체금 회수의 어려움등이 조합운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규 연체조합원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며 신규 연체조합원들이 늘어나는 점은 경기침체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연체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예탁금과 대출금은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할 경비는 지출되어야 하나 대출금 저조로 인한 사업수익금이 점차 줄어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선으로 서로 유지할때 조합과 조합원이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반대현상이 나타날때 절름발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불황을 어떻게 타개하여 나갈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조합과 조합원 나아가 지역주민들,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절약하고 저축할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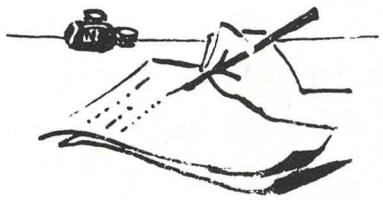
대 차 대 조 표

1986. 7. 31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18,060,128	보통예탁금	151,518,472
제예금	239,722,593	자립예탁금	403,972,022
예탁금상환준비금	83,100,000	정기예탁금	599,762,472
일반대부금	1,035,506,823	신용적금	510,177,928
적금대부금	482,940,623	가수금	534,630
범위내대부금	48,047,100	미지급법인세	44
가지급금	1,620,112	제세예수금	302,560
투자금	655,000	임대보증금	6,500,000
법정출자금	4,910,000	퇴직급여충당금	12,288,289
전화가입권	475,000	미지급배당금	399,424
보증금	30,000,000	안전예수금	137,003
구축물	3,959,100	출자금	263,862,107
구축물감가상각충당금	△ 2,770,000	법정적립금	12,968,256
비품및집기	7,062,588	특별적립금	7,892,527
비품및집기감가상각충당금	△ 3,850,554	임의적립금	5,331,525
토지	35,294,200	이월잉여금	77,687
안전기금	2,456,000	당기순이익	14,375,967
건설가계정	2,912,200		
계	1,990,100,913	계	1,990,100,913

※ 조합원 : 2,667 명

조 합 소 식



◉ 이사회 동정

정기 이사회가 지난 6 월30일과 7 월27일에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대 사무실 재계약에 관한건, 직원 하절기 휴가건, 연체독려 일지 작성보고 및 연체해결 방안에 관한건, 불경기로 인한 자금수요 확보및 대출방법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하절기 건강관리에 만전을기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 수석감사 교육수료

지난 7 월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 덕명동에 자리잡은 신협 연수원에서 실시한 감사교육에 이홍재 수석감사가 교육을 수료했다. 조합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교육을 받은후 2/4분기 감사를 실시한 수석감사는 날카로움이 더욱 빛나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 임, 직원 단합대회 예정

7 월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임직원 단합대회가 8 월17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임직원 단합대회는 임원들과 직원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심하여 조합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이번 임직원 단합대회도 신뢰와 안정속에 조합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여본다.

◉ 2/4분기 자체감사

조합 운영및 회계전반에 걸친 2/4분기 자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홍재수석감사외 2 명의 감사에의한 지적사항은, 출자범위내 대부금 연체에대한 연체조합원과의 상담, 일반, 적금대부, 연체자에대한 독촉장 발부 및 법적처리 단행, 의료비 개인부담에대한 조속한 시일내의 의료비회수 6 개월이상 연체자에대한 법적처리 및 연체비율 대폭감축등이 지적되었다.

◉ 의료비지연 납부안내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의 개인의료비 납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미납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자격상실 할 염려가 있다. 의료비 미납부 조합원들의 조속한 의료비납부를 촉구하며 6 개월이상 1 년분씩 선납하여야 한다.

◉ 연체독려

장기 연체(6 개월이상) 조합원들에대한 연체독려가 계속되고있다. 2/4분기 감사에서도 연체자들의 소재파악과 아울러 법적처리를 단행하도록 지적되었고, 당조합에서도 연일 연체독려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법적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연체조합원들의 성의있는 변제로 조합과 조합원, 나아가 연대보증인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여 본다.

금, 은, 보석, 세공
각종시계, 판매 및 수리
대 성 당
(조합원 · 교우우대)
T. 3-2877 (성황당 삼거리)